



HAL
open science

Han'gukhag-ŭi sŏn'guja Maurice Courant (한글학의 선구자 = Un précurseur des études coréennes, Maurice Courant) 2

Daniel Bouchez

► **To cite this version:**

Daniel Bouchez. Han'gukhag-ŭi sŏn'guja Maurice Courant (한글학의 선구자 = Un précurseur des études coréennes, Maurice Courant) 2. Tongbang hakchi 한글학, 1986, N° 52, pp. 83-121. <halshs-00443575>

HAL Id: halshs-00443575

<https://shs.hal.science/halshs-00443575>

Submitted on 30 Dec 2009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韓國學의 先驅者 모리스 꾸랑(下)

D. 부 세*

II.

일본측은 불란서 사절단이 동경에 “불란서 대학”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학 건립은 前駐日佛 大使의 구상이었었고, 더욱이 1918년 불란서 법률·경제·역사·문학·언어 예술을 포함하는 교과 과정을 토의할 임무가 리용대학 이사회에 맡겨지기까지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중한 주뱅 총장은 동경에서의 대화방향을 문화 교류쪽으로 바꾸었다.⁴² 그는 수상, 외상, 문교상, 총장, 학장, 교수들 앞에서 불란서는 일본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다져지기를 기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일본측에 제안을 하는 대신 오히려 일본측을 향하여 우호관계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편, 그러한 관계는 상호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같은 협상 방식은 기대한 바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든 것이 주뱅의 고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는 극동 문화에 대해 거의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 증거로 그가 매년 꾸랑의 기록부에 총장의 평가를 덧붙

* Daniel BOUCHEZ, 불란서 국립학술연구재단 연구관, 在歐韓國學會(AKSE) 회장
⁴² 리용 사절단과 일본 당국 사이의 협상 내용에 대한 자료는 필자가 발견한 꾸랑의 보고서이다. 『一佛文化』(45號, 1984, pp.31~64)에 실렸다.

일 때, “매우 특수하다”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방콕에서 캄차카에 이르는 지역과 석기시대부터 자동차 시대에 이르는 시기를 다룬 광범위한 내용의 강의에 대해 그같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아 극동문화에 문외한이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문화에 대해 그같이 갑작스런 존경을 표하게 된 것은 그가 현명하고 적절하게 선택한 그의 수행자의 영향력 덕분이 아니겠는가.

일본 관계 당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한편 양인은 동경에 불란서 대학을 세운다는 당초의 계획이 과연 시기적절한 것이냐에 대해 암암리에 조사를 진행시켰다. 즉시 그 계획의 비현실성이 명백히 드러났다. 불란서 대학이란 불어에 능한 일본 학생수가 충분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군다나 대학 운영에는 상당한 경비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데 일본측은 이를 공동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문제의 대학은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과 겨루게 될 터인데, 실패의 경우 불란서의 체면이 손상되고 성공할 경우 일본인들의 자부심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 양인은 양국의 문화 교류를 확보할 다른 수단을 강구하였다. 그들에게 떠오른 구상은 로마와 아테네의 불란서 회관을 모방하자는 것이었다. 주뱅 총장은 7월말 京都를 다녀오는 길에 이 구상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극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불란서인들을” 일본으로 보내어 그들의 연구를 계속하게 하고, “젊은 학자들로 하여금 일본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학문을 탐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불란서회관”을 세워 이들을 기숙시킴과 동시에 양국 문화교류의 자연스러운 터전이 되도록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계획을 일본측에 제안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신용을 얻고 있다 하나 외국인인 그들은 일본 고위 인사의 후원이 필요했다. 一佛學會長인 古市公威(후루이치·고오이) 남작은 병환이라 그들을 도울 수 없었으므로 일본 아카데미 회장인 穂積(호즈미) 남작에게 접근하기로 작정했다. 穂積 남작은 이들을 맞아들이고 이어서 그의 장인이자 재정가이며 유명한 학술 후원자인 澁澤榮一(시부사와·에이치) 자작(1840~1931)에게 소개하였다. 이같은 환영에 고무된 주뱅과 꾸랑은 그들의 구상을 書面化하였다. 재정적 측면도 고려 되었으며, 불란서 대사관이 1911년에

구입한 慶應(게요오) 大學에서 멀지 않은 芝(치바)의 토지 일부를 기숙사 건축에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澁澤榮一 자작의 개입으로 이 계획에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학회와 고위층의 관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측은 즉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주뱅과 꾸량은 서면을 제출한 후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 측이 새 구상안을 놓고 토론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때맞추어 기회가 왔다. 7월 중 대학 사절단은 파리로부터 北京주재 불란서 공사도 방문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일본측에 숙고할 시간을 줄 겸 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러나 학기초까지 리용으로 돌아가야 하는 총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꾸량은 단신으로 동경으로 돌아와 협상을 계속할 참이었다. 어느 문서 보관소에도 그들의 북경 체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여하간 주뱅과 그의 부인은 8월 22일 上海에서 불란서행 배에 올랐다.

중국으로 가는 도중 여가를 이용하려 주뱅과 함께 작성해 놓았던 “대략의 예산안”을 지니고 9월 중순 동경으로 돌아온 꾸량은 그 사이 일본인들도 토론을 거쳤음을 보았다. 꾸량이 다시 접촉을 시도한 문교상과 동경대학 총장은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澁澤榮一 자작은 문제의 단체의 재정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개시하였다. 꾸량이 9월 28일 神戶(코베)에서 출항하기 위해 동경을 떠날 즈음 협상은 궤도에 올라있었다. 그가 떠난 후 침체된 협상은 그의 수중에서 벗어나고 결국 1924년에 이르러 유명한 문학인 불란서 대사 뵈 끌로델(Paul Claudel)에 의해 東京一佛會館의 창설을 보게 된다. 이 이래로 이 회관이 많은 기여를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9월 초에 이루어진 조선행은 겨우 보름간으로 예정보다 훨씬 단축된 일정이었다. 북경에서 철도 편으로 동경을 향한 꾸량은 평양, 서울, 대구에 머물렀다. 서울에서 그는 1908년 이래 만나지 못했던 민주교와 재상봉할 수 있었다. 그와는 이후 1925년 주교의 마지막 유럽 방문시 단 한번 더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역시 수도에서 「조선서지」의 편자는 수십년 전의 체류시 방문할 수 없었던 “宮廷圖書庫”에 초대되었다.⁴³ 대구에서 내린 그는 옛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짧은 여행을 하였다. 그

⁴³ 1923년 1월 21일 민주교에게 보낸 편지 : “司書들의 안내로 宮廷圖書庫를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필사본과 인쇄본이 소장되어 있더군요. 아마 주교님께서 지난 가을 출입하신 곳이 바로 이 도서관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휘둘러보는데

러나 그가 문예학술원의 원조금까지 받으면서 기획했던 고고학적 또는 금석학적 탐사작업을 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 대각선으로 성급히 횡단하는 데 그친 이번 여행은 그의 뜻대로라면 그의 연구의 주목표가 되었을 나라를 두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되었다.

꾸량은 12월 마르세이유에 도착했다. 귀국해보니 다른 성질의 문제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에 돌발한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에펠리 그의 자택 내에 이미 오래전부터 잠복해 있었다고 여겨진다. 부두에서 꾸량은 부인이 보낸 전보를 받았다. 귀가를 며칠 늦추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야릇한 요청과 뒤를 이은 여러 사건의 동기가 무엇이었던간에 부부는 1921년 1월 13일 별거를 선언, 28년 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관하여 꾸량 자신 1921년 4월 24일 폴랭에게 쓴 편지에서 담백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쓰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망설이느라 이렇게 소식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에게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게지요 극동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안이 風飛雹散이 되었던군요. 아내는 낭비벽에 걸려 가사를 탕진하고 두 아들은 쓸모있는 일이라고는 하려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털선한 이들을 바로 잡아보려고 제가 가진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노력해 보았고 저와 뜻을 같이하는 처남 크리스티앙 셰페르(Christian Schefer)도 도와주었지만 수개월에 걸친 노력도 허사로 돌아가 아내의 요구였던 별거가 3개월 전 선언되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그와 달리 아내의 금전적 실수를 막을 도리도 없고 실수를 한다 해도 도와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나마 남은 재산을 낭비해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혼자 남아 나약한 세 영혼을 보살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수치심 때문에 아내의 낭비벽이 갑작스러운 일인 양 쓰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 구절에서 엿보이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필자가 수집한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엘렌 셰페르는 그가 자부할 수 있는 내조자가 못 되었던 것이다.

나머지 두 “나약한 영혼”은 그의 두 아들이다. 당시 각각 25세, 19세의 샤를르와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 메모를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다른 여러 자료와 함께 상자속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宮廷圖書庫”라는 표현은 藏書閣과 奎章閣을 이르는 말이다. 왜냐하면 1919년 현재 奎章閣도서관은 아직 경성 제국 대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Jean)은 모친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금리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의 정신 상태에 공백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라고 1921년 1월 8일 민주교에게 하소연하였다. 1914년까지 그들을 손수 가르치기까지 한 부친은 그 보답을 받지 못하였다. 모친과 마찬가지로 샤를르와 장에게도 후견인이 딸리게 되었다. 샤를르는 척추 이탈로 1930년 독신인 채로 죽고 차남만이 부친 사망시에 아직 살고 있었다. 1936년 결혼, 1950년 자식 없이 사망했다. 아들을 다섯이나 낳은 모리스 꾸랑은 손자를 보지 못하여 남은 후손도 없다.

별거와 살림 청산 후 엘렌 세페르는 아들들과 함께 이제르(Isère)의 뵈레보로아즈(Veurey-Voroize)에 정착하였다. 그곳에서 1933년 7월 29일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한다. 모리스 꾸랑은 리용시 삭스(Saxe)가 28번지에 있는 하숙집으로 거처를 정하였다. 생뵈땡(Saint-Pothin) 성당 맞은 편에 이 白石 건물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 그는 그곳의 방하나를 얻어 죽는 때까지 머물렀다. “나의 독방”이라 그가 이름했듯이 책 둘 자리도 없는 협소한 곳이었다. 1919년 일본에서 우송했으나 서고에 여유가 없어 상자 채로 간직하고 있던 책을 비롯하여 나머지 그의 서적 모두 어느 친구의 집에 맡겼다. 금후 그는 끌로드 베르나르 강변가(qui Claude-Bernard)에 자리한 문과 대학에 매일 출근하여 조그만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였다.

규칙적인 생활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동요로 인하여 꾸랑은 그가 극동에서 준비해 두었던 메모나 구입한 서적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의 생애 유난히 활동적인 시기에, 다시 말해서 어려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안일로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 자세로 임할 수 있었어야 했을 시기에 이같은 파란을 맞았던 것이다.

주뱅 총장과 함께 극동에서 맡았던 사명은 당초에는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중에야 북경도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일본 여행은 꾸랑 개인적 입장으로 보아서는 기약 없는 원정에 불과했던 반면, 예기치 않았던 중국행은 그의 생애 마지막 15여 년간 끊임없는 활동을 계속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꾸랑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나라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

에 빠져 있었다. 1916년 북방의 독재자 袁世凱 사망 후 “軍閥”은 영토 분쟁에 한창이었고 북경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사정부는 1919년 5월 4일 중국 내 옛 독일 영토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파리조약의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폭발한 학생들의 분노를 견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주뱁과 꾸량은 東京案에 유사한 불란서 대학을 건립하여 중국 학 연구를 담당케 할 구상을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보다 실속 있는 회견이 진행된 곳은 중국이 아니라 불란서에서였다.

동경으로 되돌아 온 꾸량이 귀국길을 서두르고 있을 즈음 리용의 주뱁 총장은 어느 중국인의 방문을 받았다. 앞으로 수차례 언급될 이 중국인은 李石曾, 字는 煜瀛이라는 유명한 인물이다.

1881년생, 河北 名門 출신의 이 奇人은 1902년부터 1911년까지 불란서에 거주하였었고 평생 중국과 불란서의 문화 교류에 노력한 親佛人事이다.⁴⁴ 石工共濟會會員이었으며 무정부주의자임을 자처하였다. 어떤 의미의 무정부주의자인가? 이것은 李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던 다른 중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의문점이다. 콘라드 브랜트(Conrad Brandt)⁴⁵, 그리고 이어서 아니 크리젤(Annie Kriegel)⁴⁶은 이들이 무정부주의자라면 계몽주의 철학자들 정도의 무정부주의자들에 불과했다고 하였다. 어쨌든 李石曾 자신이 크로포트킨(Kropotkine)의 신봉자임을 주장했으며 그의 「互助論」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新世紀」에 掲載하였다. 「新世紀」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파리에서 주간으로 출판되었으며 무정부주의 사상을 변함없이 옹호한 잡지이다. 그런만큼 만일 李가 오늘날 그의 신념의 진지성 여부가

⁴⁴ 모리스 꾸량이 상대한 중국인들의 경력에 대해서는 H.L. Boorman & Howard, *Biographical Dictionary of Republican China*,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67~1971, 4 vols.를 주로 참고로 하였다. 李石曾에 관해서는 그의 생전에 *Annales francochinoises*에 실린 짧막한 전기(1927, n°2; pp:27~30)와 그의 회고록(『石會筆記』臺北 1961, 1966)도 참조.

⁴⁵ Conrad Brandt, “The French returned elite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roceeding of the Symposium on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f the Far East*, E,F, Szcapanik(ed.), Hong-Kong Univ. Press, October 1961, pp.1~10, p.3.

⁴⁶ Annie Kriegel, *Communismes au miroir français*, Gallimard, Paris, 1974, p.252, p.77. 크리젤 여사는 제3장에서 중국 공산주의의 불란서적 기원을 다루고 있다 : “Auxorigines françaises du communisme chinois”, (pp.55~93).

의심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달가와 하지 않을 것이다. 로버트 A.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와 조오지 T. 유(George T. Yu)⁴⁷는 「新世紀」를 면밀히 조사한 뒤 “매우 논리적인 무정부주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젤 女史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들 무정부주의자들의 관계는 불란서의 혁명적 모임에서가 아니라 고위 인사층과의 접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들은 가톨릭 해외 선교사들의 해외 활동을 저지하고자 애쓰던 반교권주의 좌파와 친분을 두텁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사회주의자뿐 아니라 激進黨도 포함된다. 이들 중국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존경해 마지 않던 불란서는 콩브(Combes)와 자유사상가의 불란서였던 것이다. 독실한 가톨릭신자였으며 선교사들의 벗이었던 꾸랑의 불란서는 아니었다.

생물학자 李石曾도 파스퇴르(Pasteur) 연구소 출신이며 豆類 연구가 그의 전공이었다. 그는 식물성을 기초로 한 경제적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전 인류 대상의 대단위 계획에 참여하였다. 1909년 파리 교외 콜롱브(Colombes)에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까제오소젠느(Caséosojaïne) 생산 공장을 세웠다. 1911년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다음해 留法儉學會 설립에 참가하였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설립 목적은 중국 학생을 적은 경비로 불란서에 유학시킨다는 것이다. 불어로는 Société rationnelle des étudiants chinois en France라 命名하여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기호를 반영하였다. 이 학회는 1년 만에 해체되는 1915년 勤工儉學會로 대체되었다. 勤工儉學會의 후원회격인 華法教育會가 同年 불란서측의 협조아래 발족되었다. 1차대전이 한창일 때 불란서로 건너온 李石曾은 華法教育會 창립에도 참여하였다. 이제 중국학생들은 군대에 동원된 노동자를 대신하여 공장에 고용되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게 되었다. 이천을 헤아리는 학생들이 이 기관을 통해 불란서로 왔으며 그 중 미래의 지도자격 인물이 적지 않다.

華法教育會의 중국인회장 蔡元培(1868~1940)는 격동의 시기에 대활약을 한 인물이다. 淸의 翰林院學士였던 그는 베를린 대학과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수학한 후 중국의 약점은 교육제도의 후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中華民國 선포 후 그는 1912년 教育部長직을 수락했으나 1년 후 사임하고 유럽으로 돌아와 중국유학생 후원을 불란서와 벨기에에 조직하고자 노력하고 있던 李石曾 등을 지

⁴⁷ Robert A. Scalapino & George T. Yu, *The Chinese Anarchist Movement*,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 of Calif., Berkeley, February 1961, p.81, p.7.

원하였다. 그는 1916년 말 본국의 부름을 받고 귀국, 國立北京大學校 총장으로 취임, 6년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인재를 식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비교를 역설하던 그의 주변에 많은 두뇌가 모였음은 당연한 일이며, 이들이 1919년 5월 4일 시위 운동과 같은 주요 사건의 시발점을 이루었고 이후 全中國을 휩쓴 지적 발효의 발판이 되었다. 그가 구성한 교수진 속에 李石曾도 당연 포함되어 1917년부터 그와 함께 일하였다.

兩人은 중국에 돌아가서도 華法教育會를 잊지 않았다. 蔡는 여전히 회장직에 머물러 있었다. 서구 특히 불란서에서의 유학생 파견과 불란서 교육제도의 도입은 그들의 문호개방과 근대화 계획의 초점이었다 할 수 있다. 1918년 10월 20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北京에서 華法事業會議가 개최되었다. 1918년 9월 리용으로 돌아온 주병보다 앞서 李石曾이 불란서에 도착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는 회의 직후 北京을 출발한 듯하다. 몇 주일 후 그는 리용으로 가서 주병 총장을 만나 華法教育會의 이름으로 이 도시에 이천여 중국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中法大學을 세우자는 건의를 하였다. 이것은 꾸랑 귀국 이전의 일이었다.

李는 총장에게 그의 기획의 윤곽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꾸랑이 이중 손수 요약해 놓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 요점은 이 대학이 양국 공동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불란서측은 “과학적 연구작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건물을 세우는 일을 맡을 것이며 이천여 학생을 수용할 기숙사와 식당을 마련하는 것 또한 불란서가 담당할 것이다. 식당에서는 華法教育會의 검소 기치에 따라 “불란서 음식보다 경제적인 중국음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교육은 중국학생을 위한 특별교육이 구성되지 않는 한 각 단과 대학 또는 해당 학교에 의해 담당될 것이며, 특별교육문제는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결정될 것이다.

과연 어디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것인가? 1919년의 불란서는 자국의 재건을 우선해야 할 상황이었다. 李의 起案에는 재정문제에 관하여 義和團사건 배상금 중 “중국이 불란서에 지불해야 할 나머지 2억 프랑”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淸조정의 원조를 받은 의화단의 봉기와 1900(庚子)년 여름 서구 列強의 군사개입에 이어 중국은 議定書에 따라 1901년 9월 7일 엄청난 배상금을 39년부로 지불할 것에 서명해야 했다. 배상금액은 銀子 4억 5천만 兩 또는 16억 8천 7백만 金프랑에 달

하였으며 여기에 年 4%의 이자가 첨가되었다.⁴⁸ 중국 정부는 열강에 海關 수입 -당시 海關長은 영국인- 과 염세수입을 담보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해 주어야 했다. 도처에서 침략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결정적인 부담이었다. 1908년 미국은 그들 몫의 절반 가량을 중국에 반환함으로써 부담을 약간 경감해 주었다. 게다가 잔고 역시 젊은 중국인들을 美大學에서 교육시키는데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⁹

1917년 8월 14일 중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佛·英·美·日·伊·葡는 5년간 지불 유예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열강에 대한 지불은 1922년 재개될 것이었다. 꾸랑이 복사한 李石曾의 起案은 “배상금 면제설이 돌고 있다. 미국은 이미 동의하였고, 일본과 영국도 공식적으로 이를 약속하였다. 불란서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李石曾은 불란서 측에 대해 11년 전부터 미국이 실행해오고 있는 예를 따를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을 여러 대학에 분산시키는 대신 불란서의 경우 동일 장소, 다시 말해서 그가 리용에 건립하고자 하는 대학에 모으자는 계획이었다.

자신이 幹事長을 맡고 있는 華法教育會의 이름으로 이상과 같은 요청을 한 李石曾은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틀림없다. 그로부터 2년후 里昂中法大學의 개관을 교란시킨 사건을 여기에 관련시켜 보자. 당시 폭발한 勤工儉學生(勤勞學生)들의 분노는 사기 당한 자의 분노였던 것이다. 그들이 인쇄하여 배포한 유인물은 李石曾이 이 기구의 건립을 고안한 것은 바로 그들의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들은 “華法教育會의 간부들”이 그들에게 했다는 약속의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그들은 “대학의 특별교육을 받을 것이며 현지에서 기숙을 제공받기로” 약속되었다 한다. 이들의 원성의 진실성은 간단히 확인된다. 즉 李의 起案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수와 華法教育會가 불란서로 데려온 근로학생수가 이천명으로 일치하고 있다. 李石曾은 리용에 대학을 세울 계획을 하면서, 그 대상을 앞으로 도착할 학생이 아니라 이미 불란서에 와 있는 근로학생으

⁴⁸ 이 의정서의 英譯은 John V. MacMurray, *Treaties and Agreements with, and concerning China*, 1884~1919, H. Fertig, New York, 1973, 2 vols., vol.1, pp.278~284, with annexes pp.285~294 참조.

⁴⁹ Ibid., pp.311~315 ; Huang Fenghua, *Public Debts in China*,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19, p.105 Repr., 1969, pp.26~28.

로 잡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李石曾의 거동은 여러 관점에서 야릇한 것이었다. 불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일개 외국인인 그는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다. 그가 대표한 華法教育會 역시 사적인 모임이었다. 그런데 그가 작성한 요구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불란서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公金에서 인출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의화단 배상금의 활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배상금 명목으로 지불된 자금을 상호이익 관계의 문화사업으로 올리는 것은 불란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배상금을 면제하는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이는 국제 협약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관하여 중국과 불란서 사이에 어떠한 협상도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李는 그의 제안을 파리의 문교성이 아니라 지방의, 따라서 하급의 일개공무원인 리용 대학 총장을 독단적으로 선택하여 그에게 제출한 것이다.

사실상 리용시와 리용대학의 선택은 혼자만의 생각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다. 이것은 華法教育會 會員 중 두 명의 리용 출신 의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다. 華法教育會의 부회장인 마리위스 무떼(Marius Moutet, 1876~1968)와 1905년부터 리용 市長으로 지내온 에두아르 에리오(Edouard Herriot, 1872~1957)가 바로 그들이다. 양인 모두 좌파의 정치인으로 1919년 11월 보수적 색채가 짙었던 하원 선거 결과 야당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파리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했으나 그들의 선거구에서는 여전히 발언권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특히 리용시장의 경우 그러하였다. 李로 하여금 단신으로 동분서주하게 했다면 그것은 기획 자체가 李의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李의 활동을 알고 적극 지원했으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李가 제안한 재정문제 해결방안만 보더라도 만일 그가 불란서 友人들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것처럼 거침없는 태도를 취할리는 만무했을 것이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1908년 미국의 결정이래 그런 기분이 감돌고 있었다. 중국 대학인들이 주도권을 취한 것은 불란서측의 결정을 촉구하자는 의도이며 혜택을 받을 대상인 대학 설립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그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의 도박인 셈이었으나 이후 사태의 진전으로 보아 부조리한 도박은 아니었다. 단지 계획의 차원이 너무 컸을 뿐이다.

李石曾이 주뎡을 방문한지 반년이 지난 1920년 7월 10일 리용대학 이사회는 모리스 꾸랑으로 하여금 대학을 대표하여 이 사업을 전담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이 중국측의 제안은 불란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원칙상의 합의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불란서는 의화단 배상금을 포기하지는 않고 요구사항대로 배상금 일부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문화 교육 사업에 투자할 것을 수락하였다. 같은 해 3월 22일 파리에서는 중국 불란서 양국 정부의 연례 보조금으로 운영될 漢學高等研究所가 뿔 뵈르베(Paul Painlevé)를 所長으로 파리 대학 내에 발족된 바 있었다.

협상이 겨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리용에서 모리스 꾸랑이 맡은 일은 “中法大學의 기능을 보장하게 될 민간조직의 구성을 관장할 책임을 맡은 리용 협회에 있어서 리용 대학을 대표할” 것이었다. 보다시피 여기서 리용 대학 이사회는 중국측 기안에 존재치 않던 두 개념 즉 리용협회와 민간조직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측 기안은 사실 미래의 기구의 불란서 법률에 따른 규약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아마 중국인들은 새 기구가 정식단체이자 존경받는 불란서 대학인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華法教育會의 책임하에 놓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里昂中法大學은 華法教育會諸事業의 일환이었다. 이 대학의 목적은 실업 상태 또는 실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근로학생의 불안정한 여건을 구제하고 그들의 학업을 보다 순조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주뎡 총장은 200명의 학생을 시험을 거쳐 받아들이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들에게는 시작에 불과했으며 1920년 여름에 연달아 일어난 두 사건이 이를 증명해 준다.

8월 4일 여름 휴가에 들어가 있던 주뎡 총장은 꾸랑에게 중국으로부터 여러통의 “이해할 수 없는” 전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내용인즉 “미래의 里昂中法大學을 파리 교외 라 가렌-콜롱브(La Garenne-Colombes)에 위치한 華法教育會 산하의 라 가렌 근로학생사무처(Service des étudiants-travailleurs de la Garenne)와 연결시킨다”는 것이었다.⁵⁰ 또한 라 가렌 근로학생사무처가 아직 자리를 잡아주지 못한 300명의 학생이 리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 여기에 郵船社의 뵈르도스號라는 객선 郵船을 탄 270명의 학생이 참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⁵⁰ “중국에 돌아온 그(李石曾) 역시 불란서에 정보를 보내어 근로학생조직과 리용대학의 협력을 극력 추천하였다”(何長工, 『勤工儉學生活回憶』, 北京 1958, p.66).

역시 8월 중, 리용과 라가렌의 합작 사업을 위해 70만 프랑이라는 거액이 두 차례에 걸쳐 北京으로부터 주뱅 총장의 구좌로 송금되었다. 주뱅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금액을 영수하게 되면 두 기관의 합병을 인가하고 문제의 570명 학생을 리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는 리용에 남아 있는 꾸랑에게 “중국인들의 행동이 경망스럽다”고 하며, 신중하게 처신해 줄 것을 중국측에 당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중국을 대표하여 꾸랑과 상담을 나눈 이는 褚民誼라는 이름으로 꾸랑은 “유통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884년생이며 일본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때 孫文派의 한 사람인 유명한 汪精衛를 만나 평생을 두고 회로애락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1907년부터 파리로 와서 李石曾, 蔡元培와 함께 무정부주의적 경향의 「新世界」를 발간하였다. 보르도 의과대학에 등록한 그는 1920년 華法教育會의 지시에 따라 리용대학과의 협상을 맡게 되었을 때 아직 의학공부를 끝내지 못한 형편이었다.⁵¹

8월 23일 꾸랑과의 첫 대면에서부터⁵² 그는 상대가 기본문제 즉 라가렌 사무처 소속의 근로학생 수용문제에 대해 확고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리용 대학으로서는 대학이 선발하지 않은 지원자를 입학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褚는 불란서측 반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北京에 전보를 보냈으며 10월 6일 동의한다는 답신을 받아 결말을 지었다. 300명의 근로학생도, 불란서로 향하고 있는 270명도 리용으로 배당되지 않게 되었다. 사실 점점 문젯거리가 되고 있던 근로학생들의 운명은 리용 대학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이들을 불란서로 불러들인 華

⁵¹ 褚民誼는 1922년 리용을 떠나 벨기에의 마르시엔노뿔(Marchienne-au-Pont)으로 가서 샤를르루와(Charleroi) 노동대학 부설 중국학생관(Home des étudiants chinois)을 세웠다. 그는 또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의학공부를 계속하였다. 1925년 廣東대학교 의과대학장, 1927년부터 1939년까지 上海中法 기술전문학교장 역임. 국민당 내에서 汪精衛派의 일원으로 蔣介石派에 맞섰으며 1939년 1월 汪과 함께 蔣에 의해 축출당하였다. 그 후 中日 전쟁時 親日정부의 외무부장직을 수락하였고 이로 인해 반역자의 낙인이 찍혀 1946년 8월 23일 총살을 당하였다.

⁵² 1920년 8월 21일부터 1921년 1월 11일 사이의 꾸랑의 일기와 中法大學協會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諸文書(편지, 편지초고, 보고서, 규약, 신문스크랩)의 도움으로 협상의 진전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핵심적인 정보원은 주뱅총장과 꾸랑 사이에 오고 간 서신이다. 총장은 1920년과 1921년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리용을 떠나 있었다.

法教育會가 전적으로 맡아야 할 책임이었다. 협상 초기 단계부터 상대측으로 하여금 대학 자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케 함으로써 꾸량은 중국인들의 초안을 변형시켰다. 그는 불란서 전국의 중국학생을 리용에 집결시키고 수천의 중국 젊은이들을 한 기관에 소속시킨다는 그들의 비현실적인 생각을 포기할 것을 암암리에 종용하였다.

이와 같이 급선무를 해결한 후 꾸량은 褚와 회담 중에서 미래의 기구에 불란서 법률에 입각한 규약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상 그럴 시기가 되기도 했다. 국방성 장관은 손(la Saône) 강을 내려다 보는 고지 생띠레네(Saint Irénée) 요새의 무용한 토지와 군용 건물을 리용 대학에 양도할 것을 허락하였다. 7월 15일 총장은 시장에게 그곳의 정비작업 착수를 신청하였고, 요새사령관은 8월 14일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기도 전에 토지와 건물을 褚에게 양도하였다. 中法大學은 서류상으로 존재하기에 앞서 부지와 건물이라는 형태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 규약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꾸량은 이미 9월초 대략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9월 5일에 기록된 그의 구상안에 따르면 대학과 이의 책임을 맡은 민간 조직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후자는 기본방침과 통솔을, 전자는 일상적인 세부사항을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민간조직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대학총장이 직무상 회장을 맡게 될 것이다. “불란서적 요소의 우위”를 확실시키기 위해 총장겸 회장을 도울 실무자를 불란서인으로 선정하여 中法大學과 불란서행정부처와의 관계를 담당케 한다는 구상이었다.

9월, 꾸량과 褚는 서로 협력하여 34개조로 된 규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中法大學은 민간조직의 권한 하에 놓이며, 민간조직은 그 내부에서 불란서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선출하며, 감사위원회는 다시 9명으로 이루어진 중역회에 관리와 운영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간조직의 법적 구성을 나름대로 작성해 놓았던 꾸량은 위의 양식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게다가 10월 13일 그가 총장에게 보고했던 바와 같이 구성원의 재정적 책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포기하고 1901년 7월 1일 법령에 의해 인정되어 있는 협회로 대치할 것을 천거하였다. 10월에 열릴 리용대학 이사회에 앞서 그는 “中法協會案”과 이 협회에 의해 맺어질 “동의안”을 주뱅에게 제출하였다. 이사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쥐스랑(Jusserand)학장, 레뵘(Lépine)교수, 위블랭(Huvelin)교수 3인과

의과대학의 역시 레뵘(Jean Lépine)이라 불리우는 교수, 그리고 모리스 꾸랑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준비위원회의 임무는 “협회의 규약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楮와 진행되고 있던 협상에서 꾸랑의 입김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楮는 생띠레네 요새에 자리잡고 이론에 선행하는 사실의 창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는 10월 20일 그 경비가 50만 프랑에 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리는 견적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는 요새앞의 경사지를 경작하던 노동자 채소 재배협회를 몰아냄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샀다. 그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楮에게 없었으므로 곧 리용대학이사회에 의해 무효결정이 선포되었다. 楮의 이 같은 행동은 매우 대담한 것이라 하겠다. 반면 그와 잦은 접촉을 가지던 꾸랑은 얼마전부터 그가 덜 조급해하는 것 같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곧 명백해진다. 당시까지 사적 모임을 대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던 그는 9월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中國駐歐洲學務考查團”을 지휘하던 공적 인물 高魯의 권한 아래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⁵³ 꾸랑은 이 사건을 중국측의 태도강화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였다.

사실상 그들이 11월 24일 제출한 반대안을 보면 高魯는 楮의 양보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화의 흐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당초 李石曾과 蔡元培에 의한 야심적인 기획은 그 규모로 보아 정부차원의 협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접근한 것은 지방관리이었다. 그리하여 현재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인물이라고는 그의 대리자뿐이며 더욱이 그는 그 자신 쓰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리용대학의 주체성”에 주력하였던 인물이었다. 그제야 그들은 이런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꾸랑이 준비한 문서에 대해 그들이 요구한 수정안은 모두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 즉 예정된 협회의 리용적 성격을 제거할 것. 이사회 내 중국인과 불란서의 동등성을 회복시키고, 華法教育會의 대표가 이사회에 확고한 위치를 소유할 것.

그러나 꾸랑은 그의 起案의 중점 사항을 양보하지 않았다. 상대측의 급증하는 노

⁵³ 1881년 福建省 출생. 부뤼셀 대학에서 수학한 후 유럽에서 9년을 보내었고 1911년 중국에 돌아와 廣東과 南京에서 孫文의 비서로 활동하였다(M. Perleberg, Who's who in Modern China, Hong-Kong, 1954, XII-428 p., in loc.) 1930년 駐佛中國公使로 파견되었다(Annales franco-chinoises, 1930, IV, no. 16, p.1).

여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는 대학 자리를 벨기에의 샤를루와로 변경하겠다는 그들의 위협을 공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기에는 중국인들이 이미 리용에 너무 많이 투자하였다고 주뱅에게 보고했다. 1920년말에 蔡가 리용에 들러서 꾸랑과 만남을 피했다. 단지 儀典上의 문제라고 판단한 꾸랑은 총장에게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것은 총장 자신이지 그 아랫 사람이 아니라고 써 보냈다. 1920년 여름 내내 리용을 비운 주뱅은 개학 전에 돌아왔으나 첫학기 도중 장기 임무를 띠고 플로렌스로 가서 1921년 4월말까지 머물러야 했다. 꾸랑은 부재총장의 의견을 늘 서면으로 묻고 존중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연 협상은 지연되었다. 더욱이 중국측은 하급자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아 불란서측이 그들을 얹잡아 본다고 생각하였다. 3월 6일에야 국립 북경대학교 총장을 위해 베퐁 만찬에서야 그는 주뱅을 제외한 리용시의 모든 민간 또는 군사 당국 최고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맞이하게 되어 그의 위치에 마땅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5월 20일 다시 리용으로 왔으나 이번에도 총장을 만날 수 없어 자존심을 상한 듯하다.

꾸랑은 1월 28일 마리위스 무떼 의원이 중국인 벗들을 위해 그에게 보낸 부탁 편지를 받고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華法教育會 부회장 무떼 의원은 그에게 “그들은 협회가 중법대학 설립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후자의 기획이 전자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 그리고 아직 존재치도 않은 집단이 벌써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대학의 창립과 구성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또 한편으로는 대학의 구성이나 이사회 내에서 그들이 담당하게 될 역할이 단연 하등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고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내색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결코 하지 않겠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란서인으로 회장을 세움으로써 불란서적 요소의 우세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중국인과 불란서인 사이의 동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책임과 방향을 맡게 될 협회의 준비위원회 내부에 법조계 인사를 포함시키면서 中法大學의 주창자, 특히 1915년 이래 현재의 성과를 얻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힘써온 華法教育會 會員들이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褚가 책임지고 전달한 반대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2월 3일 무뎌 의원에게 보낸 답신에서 꾸량은 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국측 반대안에는 “리용대학 이사회와 中法大學 또는 협회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으므로 중국측 협상담당자들은 우리의 요구대로 그 점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명확히 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월 10일 그들이 제출한 대략의 규정에서도 이점은 묵살되었다. 4월 28일 리용 대학 이사회 부회장 쥐스랑학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蔡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사회의 개입을 거부하는데 이르렀다.

“협회는 中法大學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대변자들에 의해 구성되므로 모든 사태에 대한 협회의 결정, 승인 비준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의 원만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리용 대학 이사회의 개입은 필요 이상의 것일 뿐 아니라 협회의 권한 유린을 의미하며 따라서 협회는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4월말 협상은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5월 20일 주뎡은 꾸량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합의 서명을 들먹이고 있으며, 그 이후의 문서를 사실 사태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어떻게 하여 누구에 의해 토론의 실마리가 풀렸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5월초에 행해졌을 제안의 주체자가 누구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리용 대학과 中國校際委員會 사이에 맺어지고 1921년 7월 8일 高魯와 주뎡에 의해 서명된 조약은 제1조 “리용에 中法大學을 건립”하고 제4조 “이것은 1901년 7월 1일 법령에 비추어 조직될 中法大學協會에 속하게 될” 것을 예기하고 있다.

협회에 관련된 동사가 미래형이며 이의 조직은 꾸량이 바라던 바와 같이 선결조건이 아니라 역으로 조약체결 이후로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회는 여전히 조약의 주목표인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서식은 중국측의 요구에 응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존중한 것이다. 또한 이 조약은 리용 대학과 중국의 관계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해준다. 중국을 대표한 것은 중국과 불란서 양국의 혼합단체의 회원들이 아니라 정부기관인 中國校際委員會였다. 이것은 문제의 기구설립의 주도권이 중국측으로 되돌아갔으며 초기 재정을 담당하는 것도 중국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백히 해 주고 있다.

반면 꾸량이 거듭 강조했듯이 사적모임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리용의 모임이지

도 않은” 華法教育會는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날 서명직후 구성된 협회의 이사회에 華法教育會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불란서측은 중국인 6명과 불란서인 6명으로 구성된 “中法大學主動會員”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할 것을 동의하였다. 전자는 華法教育會 회장 蔡元培를 위시하여 高魯, 李石曾, 褚民誼, 汪精衛, 吳稚輝 等 모두 華法教育會의 회원들로 이루어졌다. 불란서측의 마리위스 무페 의원 역시 華法教育會의 부회장이었다. 그 외 불란서인 主動會員으로는 모리스 꾸랑, 리용 시장이자 역시 華法教育會 회원인 에두아르 에리오, 뿔 주뱅, 의과대학의 장레뵘 학장, 그리고 요새 사령관 마르줄레(Marjoulet) 장군이 선정되었다.

꾸랑이 바라던 “리용대학의 주체성” 역시 존중되지 않았다. 中法大學은 조약조건에 따라 “중국대학 당국이 자체 책임하에 선발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리용대학은 이들 학생들의 입학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中國校際委員會와의 협력아래 “자격조건”을 결정하는 작업은 리용 대학 이사회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란서측이 양보한 이유는 제2조 재정에 관한 조항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제2조는 의화단 배상금에 대한 언급없이 백만프랑 이내의 범위에서 생띠레네 요새 정리 작업 비용을 중국이 부담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금액은 배상금 면제의 형태가 아니라 中國校際委員會에 의해 중국에서 거두어진 기부금에서 공제될 것이다. 校務經費에 대한 보조금 역시 첫째 불란서의 7만 5천 프랑보다 많은 10만 프랑이 중국측에 전가될 것이다. 반면 리용 대학은 생띠레네 요새를 순전히 형식적인 貫만으로 협회에 빌려주게 될 것이다.

중국은 더 무거운 경비부담을 지고서도 中法大學協會의 회장직을 불란서와 공유하였다. 1921년 8월 3일 규약과 함께 론(Rhône) 도청에 제출된 명부에 의하면, 중국측 회장은 蔡元培, 불란서측 회장은 장레뵘 학장이다. 회장직을 차례로 권유받은 주뱅 총장과 모리스 꾸랑은 이를 거절하였다. 각 불란서인 담당자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인이 따랐다. 또 한가지 불란서측이 양보한 것은 꾸랑의 구상에 따르면 리용 대학의 中法大學에 대한 통제력 확인을 담당하게 되었을 협회간 사장직의 부재이다. 모리스 꾸랑에게는 이사회 주동회원이라는 보다 겸허한 직책이 주어졌다. 그는 또한 집행위원회의 간사직을 맡았고 중국 간사는 褚民誼였다. 그러나 업무는 마찬가지로, 中法大學이 불란서 법률과 관습뿐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

는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중국측에 대해 악역을 맡아왔던 꾸량은 금후 더 불쾌한 감시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1921년 가을부터 난처한 사태가 줄을 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만일 李石曾의 계획이 달성되었다면 새 기구의 혜택을 제일 먼저 받게 되었을 근로학생들이었다. 원래 계획하였던 2,000명이 불가능한 숫자라면 수는 적어도 그중 이미 실업상태인 삼백여명이라도 입학시키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입원도 없고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는 중국 학생들은 李石曾 等の 약속에 온 기대를 걸고 1년 전부터 리용의 사건 전개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7월 8일 조약이 맺어진 후 꾸량과 褚가 작성한 규약은 중국과 불란서에서 나란히 입학희망자 선발 시험을 편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廣東에서는 7월 15일, 上海나 北京에서는 7월 20일 첫 인원 총 125명이 선발되어 9월 25일 리용에 도착하기로 되었다. 불란서에 있던 이들의 선배들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선발시험이 그들 자신이 예전에 통과했던 시험과 내용이 거의 다를바 없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다. 그리하며 그들은 불란서에서 다시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中法大學에 입학하여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가지 묘한 사실은 아무도 더 이상 불란서에서의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열되기 시작한 분위기는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 단체에 의해 점화되었다. 재불 중국인들은 9월 16일 파리에 집결하여 소위 “畢業生”(졸업생)들의 里昂中法大學 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여러가지 증거로 미루어 볼 때 駐佛中國公使 陳₁ 역시 이 사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월 이래 자금이 바닥난 華法教育會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한 젊은 중국인 실업자들은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陳은 중국으로부터도 불란서로부터도 아무런 원조를 구할 수 없었다. 駐北京 불란서 공사 모그라(Maugras)는 9월 1일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본국에 보내지 않았는가?

“외교부는 이 학생들을 관심을 둘 가치조차 없는 쿠리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원조금도 보내지 말 것을 극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본인에게 정식으로 이들의 본국 송환을 약속하였다. 단지 9월 15일까지 기다려 줄 것을 부탁하며 그때쯤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 될 것이라 한다. 현재로는 금고가 완전히 비어 있다.”

또한 덧붙이기를,

“중국 학생들이 파리에서 중국 공사관을 상대로 시위 운동을 벌이게끔 방치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본국 송환 결의가 다져질 것이다. 우리는 이 송환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닐 것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관계자들의 분노가 완전히 그들의 정부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⁴

陳公使는 불란서 당국의 수범을 예견한 것일까? 어쨌든 그가 학생대표들을 향해⁵⁵ 華法教育會가 그들에게 한 말, 즉 물론 당신들도 “불란서 정부와 중국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한” 中法大學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서둘러 확인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陳公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中法大學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권유했다. 여러가지 정보에 의하면 희망자에게 여비를 마련해 준 것은 바로 陳公사였다고 한다.

9월 21일 리용에 모인 116명의 학생은 그들이 내세운 바와 같이 불란서 방방곡곡에서 자발적으로 몰려온 것은 아니었다.⁵⁶ 그것은 시위의 조직성과 중국 공사의 역할을 은폐하기 위한 각본에 지나지 않았다. 목격자인 何長工의 보다 그럴듯한 증언에 의하면⁵⁷, 이들은 그 직전에 파리에서 열렸던 집회의 대표자들로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함께 리용으로 직행한 것이라 한다.

9월 21일 116명의 젊은이들은 생띠레네 요새에 침투하여 그들의 입학 권리를 주장하였다. 褚와 꾸량은 며칠 후 도착 예정인 학생들에게 모든 자리가 예치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25일 그들의 동료가 도착하기 전에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겠다고 응수하였다. 현장 점거는 명백한 전략상 실책이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위법자로 되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피가 있는 중국 공사는 그렇게 되면 불란서측에서 불란서 경비로 말썽을 일으킨 張本人인 이들 중국 학생들의 송환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아래 그 같은 생각을 학생들에게 암시하

⁵⁴ Archives du ministè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Série E (Asie-Océanie), Carton 47 : *Relations cultures franco-chinoises*, doc. pp.87~88.

⁵⁵ 何長工은 학생대표의 일인으로 王若飛를 들고 있다(前揭書, p.67, p.122).

⁵⁶ 同上, pp.67~68 ; 中法協會長이 주뱅총장에게 보낸 1921년 9월 29일자 편지(中法大學協會 문서보관소).

⁵⁷ 何長工, 前揭書, p.68.

였을 것이다.⁵⁸ 실제로 그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褚와 꾸량은 른 도청에 연락을 취하였고 브레소(Bressot) 사무국장은 경찰관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젊은 이들의 단호한 결의 앞에 부딪힌 그들은 일단 그날 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까지 참고 기다려 보기로 했다. 다음날 오후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한 브레소는 재차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학생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경찰차로 이들을 연행하였다. 바로 이순간 褚民誼가 도착하였다. 그때까지 조용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 온 중국 학생들은 꾸량이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보는 앞에서 미친듯이 날뛰며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호송되는 도중 젊은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등사기로 찍어낸 불어 유인물을 차창 밖으로 던졌다. 이들은 몽뤽(Montluc) 요새에 半구금 상태로 머물게 되었다.

25일 아침 이들 중 십 여명이 리용 역으로 나가 24일 마르세이유에서 배를 내려 25일 리용으로 인도된 그들의 후배들을 만나 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125명의 신참자들은 인솔해 온 中法大學 초대 학장 吳稚暉에게도 같은날 두명의 학생 대표가 찾아와 장시간 상황을 토론하였다.

뜻은 그들에게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 1864년생인 그는 그의 친구 蔡元培와 마찬가지로 고전에 능하였고 淸朝末 유럽으로 건너와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 그는 크로포트킨과 엘리제 르끌뤼(Elysée Reclus)의 무정부주의 사상에 제일 먼저동조한 인물 중 하나이다. 당시의 동료들보다 연상이었던 그는 李石曾을 포함한 “파리派” 조직에 발벗고 나섰다. 1907년부터 1910년 사이 파리에서 무정부주의적 주간지 「新世紀」를 이끌어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1904년 마찬가지로 런던에 머물고 있던 孫文과 교분을 맺게 되는데 이 둘의 친분이야말로 차후 중국 무정부주의자들이 國民黨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孫文의 중화민국 선포 후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1912년 留法儉學會, 이어 1915년 勤工儉學會 창설에 참가하였으며, 같은해 蔡元培, 李石曾 등과 함께 불란서로 건너와 근로 학생의 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華法教育會를 조직하였다. 그러므로 6년 후 그가 직면하게 된 상황은 그 자신의 창조물이라 하겠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문제의 116명 학생의 대표를 만나주었고 그 다음날 아침 李駿 부영사와 함께 몽뤽 요새로 가서 항의자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이 상당

⁵⁸ 同上 ; A. Kriegel, 前掲書, p.87.

히 체념한 이들은 생띠레네에 남아있는 자리에 상당하는 수의 학생을 입학시켜 줄 것과 그 나머지 학생의 학업을 뒷받침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묵살될 경우 불란서 전국의 1,400명 중국 학생들이 리용에 집결할 것이라는 위협을 감돌게 하였다. 뭇稚輝와 부영사는 20명 정도의 입학과 중국 정부에 다시 연간 12,000달러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난관을 벗어났다. 약속의 前半部는 불란서측의 背書를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그 다음날 브레소 사무국장을 만난 부영사는 브레소로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레소는 9월 22일 사건에 이어 中法大學協會長으로부터 급히 리용으로 돌아온 주백과 함께 의논한 끝에 시위에 참가한 자는 절대로 대학에 입학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후였던 것이다. 부영사의 거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28일 中法大學協會長은 이번에는 뭇학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연루된 학생을 中法大學에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은 中法大學協會의 불란서 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 모리스 꾸랑의 서명없이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치 않는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는 결과만 낳았다. 레벤 학장은 또한 뭇학장에게 26일에 밝혔던 그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즉 학생측은 시험을 치룰 것을 응낙하고 중국 공사관측은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의 연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의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레벤은 브레소에서 보낸 편지에서보다는 태도를 약간 완화하며 중법대학협회는 “주모자로 여겨지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용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주모자들” 뿐 아니라 시위학생 전원을 불란서에서 추방하기로 결정지어지게 된다. 蔡元培와 李石曾은 에리오 사장에게 전보를 보내어 근로학생을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알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 리용에 기숙사가 딸린 “학교 겸 작업소”를 마련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에리오 사장은 외무성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중국인들은 약속만 일삼는다 라는 아리스띠드 브리앙(Aristide Briand) 장관의 답변이었다. 결국 시위 학생 송환 결정은 실행되었다. 10월 10일 단식투쟁에 들어간 학생들은 13일 마르세이유까지 기차로 호송되었고 11월 4일 그 중 104명이 郵船社의 객선에 강제로 승선되었다. 나머지 12명은 그 사이 감시원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데 성공하여 불란서에 남았다.

지금까지 추적해 온 일련의 사건은 말하자면 꾸량이 도맡아 처리한 근로 학생 입학 거부 사건인데 그 자체로는 별반 중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결국 실패로 끝난 항의운동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것은 “里大운동”이라 하며 하나의 공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래(1958)의 外務部長 陳毅(1901년생)같은 인물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추방된 사실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⁵⁹ 추방된 학생들 대부분이 湖南省의 新民學會 출신이었다. 新民學會는 불란서 유학 준비학회로서 여기서 毛澤東도 참가하였으나 그는 출국하지 못하였다. 毛의 요절한 친구 蔡和森(1890~1931경), 李維漢(1897년생) 그리고 미래의 유명한 “분리파” 李立三(역시 1897년생) 모두 新民學會 출신이다. 吳와의 협상을 맡았던 대표 중 한 사람이자 毛의 스승이 기도한 徐特立(1877~1968)도 마찬가지. 반면에 파리에 남아있던 시위지도자이자 이후 제2차대전 중 重慶에 毛의 대표로 파견되게 될 王若飛는 湖南출신이 아니라 미래의 중공 수상이 “里大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설도 있다. 周恩來의 전기작가 Hsu Kai Yu에 의하면⁶⁰ 이 운동을 조직한 王若飛의 측근이었던 周恩來는 116명 중에 속하였으나 추방 직전 탈출에 성공하였을 것이라 한다.⁶¹

중국 혁명운동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이 점에 대해 끄리겔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서술하고 있다.⁶²

“리용 시위 운동은 처음으로 우상을 파괴한 세대와 戰後 새로운 세대와의 사이의 절단을 분명하게 만든 사건이다. 里昂重法大學은 사실 前 세대가 이룬 성과이며 초대 학장은 吳稚輝였다. 그것은 1927년 중국에서 발생하게 될 사건의 1921년 불란서판 序曲이라 할 수 있다. 李, 褚, 吳는 국민당의 우익에 속할 반면 리용의 시위자들은 좌익 당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⁵⁹ 何長工은 이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前揭書, pp.66~71).

⁶⁰ Kai-Yu Hsu, Chou En-lai, *China's Gray Eminence*, Doubleday, New York, 1968. Trad. Franç. par J.R. Major : Chou *En-lai, eminence grise de la Chine*, Mercure de France, Paris, 1968, p.334, p.54, et suiv.

⁶¹ “周恩來는 추방을 모면한 학생들 중 하나였다”(K.Y. Hsu, 同上, p.54). Hsu는 里大 운동에 참가한 어느 학생의 말을 빌려 이 주장을 펴고 있으나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何長工의 책에는 周恩來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⁶² A. Kriegel, 前揭書, p.88.

吳稚輝 학장은 華法教育會 창립자 중 한사람이었던만큼 항의자들의 선동으로 거북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은 받은 것 같다. 게다가 그는 시험을 통하여 약간명의 근로학생을 입학시켜주겠다는 불란서측의 제의조차 이들을 통솔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로 인하여 거절해야 했다. 그리고 그 자신 중국에서 인솔해 온 학생들은 그 사이 시위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과 공감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권위를 정착시킬 수 없게 된 뜻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출구를 찾았다. 1921년 경찰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 직후 그는 베를린과 런던을 향해 출발하였다. 1922년 3월 27일자 론 지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中法大學協會 불란서 회장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맡은바 책무를 시행하러 리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⁶³

中法大學은 褚民誼 부학장이 이끌어 나갔다. 그 보고서는 그 역시 “권위라고는 없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졸업생들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돕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그를 비난하는 학생들에 대해 일말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1922~1923학년도 중, 받기로 된 장학금이 아직 대학에 도달되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무료로 기숙하고 있던 장학생과 자비학생 사이에 마찰이 잦았다. 1923년 개학 시에는 항의하는 자비학생들에 의해 감금된 褚부학장을 풀어주기 위해 경찰이 동원되는 사태마저 발생하였다. 진저리가 난 褚는 몇 달 후 리용을 떠나 스트라스부르그로 가서 그의 의학공부를 계속하였다. 이름만의 학장인 吳稚輝는 1923년 초 대학에 들러 반항 학생들을 진정시키고자 했으나 그들의 단호함에 부딪쳐 급히 파리로 되돌아가 버렸다. 얼마 안 있어 중국을 향해 승선, 1924년 귀국하였다.

그리하여 명목상으로나마 대학의 지휘를 맡게 된 것은 曾仲鳴 간사장으로서 그는 과거 현재를 통털어 리용을 거친 그의 동료들에 비해 불어에 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생띠레네 요새 밖에서는 그의 뜻이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못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중국측의 무력한 통솔력은 여러 보고서에 강조되어 있다. 이를 보충할 인물은 리용에서 단 한 사람 모리스 꾸랑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곧 中法大學 내에서 원래 불란서인에게 맡기기로 예정되지 않았던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창립 다음해인 1922~1923년도부터 그는 中法大學協會 이사회로부터 專務理事

⁶³ 론(도)지사가 문교성에 보낸 1922년 3월 27일자 보고서 p.8.

라는 직책을 받게 되었다. 적어도 1926년까지 4년간 꾸량은 中法大學의 실제운동을 도맡아 전심전력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 1925년 10월 리용대학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을 맡은 동료 교수가 그의 공적에 역점을 두고 싶다고 하자, 꾸량은 “솔직히 말해서 과히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中法大學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대학이 오늘날 어떤 지경이 되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초기 몇 년간 꾸량의 최대 관심사는 吳稚暉가 인솔해 온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문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출신도 다양했지만, 의사 또는 정직 기술자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수준도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은 모두 불어 실력이 극히 부족하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시험관들은 그 점 별로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첫해에는 다른 모든 공부를 제쳐두고 불어강좌를 열어야 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학교에 등록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학생들의 불어를 개선시키는 한편 그들의 조급함을 억제하는 일은 끊임없는 문젯거리였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나갔다. 1925년 외무성 보고서에 의하면, “里昂中法大學은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효율적인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적으로 어려운 시험(의학, 과학, 기술교육)을 치루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나태한 학생들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꾸량이 1923년부터 매년 총장에게 제출한 중국 학생들의 학업보고서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1924년 제1호 대학박사에 이어 계속적으로 학위자를 배출시켰다.

中法大學이 꾸량에 의해 운영된 시기의 수많은 물질적 난관을 생각할 때 이상과 같은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점 더욱 존경할만하다. 정규적인 보조금을 받지 못한 中法大學은 여러해동안 窮餘之策으로 겨우 꾸려나가는 형편이었다. 里昂中法大學의 재정문제는 다른 “華法教育諸事業”의 재정과 마찬가지로 다시 중국과 불란서의 관계 그리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의화단 배상금 지불의 범주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저서를 독자에게 소개할 것이 없는 입장인 만큼 단순한 전기의 한계를 약간 벗어나는 것을 무릅쓰고 관련 문서보관소를 열람한 결과를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李石曾은 1919년 리용에서 처음으로 주뱅 총장을 만났을 때부터 그가 구상하고 있는 대기획을 의화단 배상금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을 기

역할 것이다. 또한 그가 이것을 저절로 이루어질 일처럼 공공연히 이야기하여 근로 학생들 사이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차후 실망시키는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던 것을 보았다. 대독일 선전포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란서와 우방국이 양보한 5년간의 지불유예는 1922년으로 끝나게 되었다. 중국은 이 기회에 불란서가 미국의 예를 좇아 배상금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양국 공동사업에 충당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⁶⁴ 中國國民教育部長은 1920년 8월 뵘 뵘르베가 北京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였다. 불란서에서 유력한 정치인인 뵘르베는 비싼 대가를 치른 승리 후 고갈상태에 있는 그의 조국은 이 배상금을 포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1923년부터 재개해야 할 지불 금액의 일부를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힘써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일은 원만하게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1921년 중국에서 중대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해 6월 30일 中國工業銀行은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서 7월 26일 타협적인 결산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中國工業銀行은 불란서 은행이며 주식의 삼분의 일을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은행이 중국에서 소지하고 있던 주요산업이나 公共企業의 경영권은 막대한 것이었으며 예금자의 수도 상당하였다. 그러므로 은행 채권자의 빚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극동에서의 불란서의 신용과 불란서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었다.⁶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국가 公金은 인출하느니 의화단 배상금을 이용하자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일부 대학인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상금 전액을 교육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⁶⁴ 불란서측은 불란서를 미국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1922년 7월 28일자 전보에서 플르리오(Fleuriau) 공사는 1901년 미국이 피해액 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각 거류민이 입은 피해를 극히 엄격하게 조사하여 건축하면서도 총액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재무성장관 뵘 두매르는 이미 1921년 8월 11일 아리스피드 브리앙 수상 겸 외무성 장관에게 “현 상황에서 그 같은 막대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1901년 불란서 정부의 배상금 청구 기준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하였다(Archives du ministè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série E, carton 366, carton 113).

⁶⁵ 지로두(Giraudoux)의 *Bella*(1926)와 말로(Malraux)의 *La condition humaine* (1933) 등 문학 작품에도 등장하고 있는 中國工業銀行 파산사건은 양차대전 사이 발생한 중대 사건 중 하나이다.

불란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 정부와 함께 배상금 잔고에 관한 협상을 전개시켜 나갔다. 잔고의 내용은 9년부터 14,461,405.64 金프랑과 그 다음 9년부의 20,879,637 金프랑, 그리고 여기에 다시 전쟁 기간 중 유예되었던 5년부의 14,461,495.64 金프랑을 더한 것이었다. 1922년 7월 9일과 22일 北京에서 맺어진 조약은 다음과 같이 배상금이 이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배상금의 償還은 “5% 이윤의 金弗償却債券의 형태로 中國工業銀行의 극동지역 채권자들에게 불란서 정부의 이름으로 인도되어, 타협적 결산계획에 맞추어 中國工業銀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던 할당권의 액면가격과 교환될 것이며 華法教育事業 또는 구호사업에 이용될 것이다.”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을 우려한 사람에게는 불란서의 플르리오 공사가 11월 5일 이 조약으로 1945년까지 적어도 연간 백만 金프랑과 중국 공업은행의 이익할당권 수익이 교육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하면서 “1945년까지 교육사업 기금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1922년의 조약은 결국 실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불화폐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914년 8월까지 通用 프랑은 金프랑과 동격을 유지해왔으나 전쟁이 시작된 후 상황은 달라졌다. 그러나 중국을 우방측에 끌어들이고자 전전공공하던 불란서는 3년 동안 아무 말없이 通用 프랑의 지불을 인정하였다. 1918~1922년 사이, 즉 지불유예 기간 동안 프랑貨의 가치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란서에 대한 형식상의 지불은 항상 通用프랑으로 수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맞추어 銀兩으로 환산되었다. 1923년 다시 실제 지불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인가?

1921년 12월, 프랑화의 시세가 1919년 1월 시세의 절반을 기록한 때, 재무성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수상에게 1901년 협정서는 金換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북경주재 불란서 공사는 현지의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이같은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대두시킬 수 없었다. 북경 정부의 내각은 중국 북방의 수많은 군사세력 사이의 권력 관계에 따라 조직되고 해체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의 독촉을 받은 그는 1922년 12월 당시의 북경정부에 대해 그같은 의사를 전달하였다. 1923년 2월 10일 그는 外務部長으로부터 金프랑으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1919년 5월 4일 이래 점점 외세의 유린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여론을 고려치 않은 것이었다. 이같은 전반적인 여론 앞에 부딪힌 북경정부는 상기 서면이 의회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약속을 철회시켰다.

막대한 금액이 걸려있는 문제인만큼 형상은 2년을 끌었으며 그 사이 프랑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였다. 1925년 당시, 만일 이 유명한 “서푼짜리” 프랑紙幣로 지불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배상금의 5분의 4를 면제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상대측 불란서는 두가지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1921년 워싱턴에서 서명된 조약의 비준을 연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주로 일본의 견제를 목표로 한 것으로 중국의 쑹영토 통합의 보장과 海關제도 개혁을 예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번째 수단은 海關세에 이어 배상금 지불의 두번째 담보인 염세수입에 관련된 것이었다.⁶⁶ 그러므로 플르리오 공사는 1923년 7월 28일 어느 불란서 은행에 기탁된 염세수입을 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단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정부에 대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고 중국 정부는 결국 그 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보호를 받은 셈이 되었다.”

1925년 4월 12일 조약에 의해 사태의 결말을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불란서 협상 담당자들이 중국 정부의 비일관성을 이용하여 바라던 바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상대의 체면을 살리고 중국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여러가지 양보를 하였다. 제1조의 문면은 마치 불란서가 배상금 잔액을 華法教育諸事業에 이용하기로 결정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제2조를 보면 문제의 금액이 불란서 정부가 바라던 목적에 충당되도록 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잔액은…華法합작 中國工業銀行에 1924년부터 1947년까지 연부로 지불되어 美의 金弗 5% 이자의 부채에 대한 저당물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金프랑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여론은 진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電信換으로 양도되는 연부 지불의 계산은 “美金弗로 전액 환산된 현 지불방식의 환산의 이익잉여금”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그럴듯한 문구 속에 다시금 중국측이 완전히 양보하고만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통용화폐로 계산된 연부지불금은 金프랑이라는

⁶⁶ 中國海關은 총감독관인 영국인 프란시스 애그런 경(Sir Francis Aglen)의 관리하에 있었다.

용어를 피하기 위해 金弗과의 황금 환율에 맞추어 그 차액이 결국 합산되게 되었다. 2년을 끈 협상의 수확은 중국으로 보아서는 2년간의 지불유예뿐이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3조에 지불금액의 이용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1922년의 조약과 마찬가지로 中國工業銀行 채권과 華法教育諸事業에 할당되도록 규정하였다.

華法教育諸事業 그중에서도 특히 里昂中法大學은 오랜 핑계와 망설임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된 만찬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럴 시기가 되기도 했다. 리용에서는 중국 학생들을 유지할 방편이 없어 이들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찰나에 있었다.

제일 처음, 1921년 7월 8일 中國校際委員會의 高魯에 의해 조약 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비작업 비용이 제공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校務經費 보조금은 불란서와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지불되기로 결정되었었다. 불란서는 외무성 쪽에서 연간 5만프랑, 문교성이 연간 2만 5천프랑을 보조하고 북경 정부는 10만 프랑을 보내기로 하였었다. 그러나 북경정부는 1921년 5월 이후 중국 남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리용에 제일 먼저 도착한 중국학생들의 상당수가 남부출신이었다. 이들과 함께 불란서로 향하기 직전 吳稚暉는 廣東 정부로부터 이들 중 70명에 대해 매년 총 30만 프랑에 달하는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었다. 그 대신에 그는 학생들의 기숙사비와 용돈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는데 이것은 꾸량의 의견에 따르면 中法大學의 예산에 무거운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7월 8일 조약에 규정된 학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놓고 몇가 리용에 도착하자마자 양인간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양인 사이의 거북한 관계의 발판이 되었다.

게다가 廣東의 약속도 불확실한 것이었다. 부분적으로 이행되었을 뿐이며 그것도 불란서 정부와 華法教育會의 수차례 독촉을 받고 뒤늦게 실행되었다. 약속된 장학금이 늦어질 때마다 장학생들은 무료로 中法大學 기숙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자비 기숙생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었다. 褚民誼가 자비학생에 의해 감금되는 1923년 10월 사건의 기원은 바로 廣東 정부의 약속태만에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결과는 褚의 실망과 퇴직, 꾸량의 專務理事 겸 학장 대리로의 임명으로 나타났다. 廣東 장학금 연체금이 계속 누적되자 꾸량은 1924년 廣東 학생 40여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형편에 놓였다.

北京 정부의 보조금은 北京中法大學의 중개로 제대로 지불되었다. 그러나 기일을 지키지 않고 불규칙하였으므로 꾸량은 항상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비지출에 마음을 졸이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中法大學協會長은 수차례에 걸쳐 불란서 정부에 대해 즉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학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였다. 정부는 의화단 배상금의 선금조로 특별보조금을 마련하여 中法大學을 유지해 나갔다.

1925년 4월 12일 北京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이 같은 불안정하고 혼란한 운영시기에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양국 정부는 5월 중 중국의 수도에 혼성위원회를 모집하여 華法教育諸事業에 약속된 원조를 받을 대상, 방법, 조건을 확정짓기로 하였다. 조약 내용에 의하면 出資源은 두가지였다. 첫째, 연간 약 20만金弗(백만 金프랑)에 달하는 金弗 債券이자로 교육사업에 배당되었고, 둘째, 중국 정부에 위탁된 프랑 割當券으로서 이것은 中國工業銀行 자산 또는 파산선고 이후 구성된 관리인회의 이익할당권(총 4억 내지 4억 5천만 프랑)의 매각에 배당되어 24년에 걸쳐 償却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또 다시 지체되어 꾸량은 1925년 불란서 정부에 선불을 요구해야 했다. 지체 원인은 혼성위원회의 중국인 회원 구성이 당시 소련과 밀접하던 國民黨員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중국 정부의 불만이였다. 불란서 공사도 이에 공감하고 있었다.⁶⁷ 그 중 가장 유명한 이는 1919년 주뱅 총장을 방문했던 李石曾으로서 혼성위원회의 공동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 자신의 임명 결정을 철회하고자 한 중국 정부측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李石曾과 그의 “파괴적인” 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북경주재 불란서 공사는 해마다 분배할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金弗이 既存의 華法教育事業에 돌려질 것, 그리고 그것이 불란서의 出資 몫으로 배당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해 그가 이 규정을 무기한 연장하게 만든 것은 이번에는 北京 정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다.

里昂中法大學은 혼성위원회로부터 첫째 15,000 金弗밖에 받지 못하나 이듬해부

⁶⁷ 마르텔(Martel) 불란서 공사는 李石曾에 대해 “……그는 불란서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불평등 조약의 철폐와 중국 주권의 완전한 행사를 주장하는 진보당의 지도자들과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자”(Archives du ministè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Série E, carton 369, fol. 252~258), “……중국 출자 몫은 국민당과 같은 파괴적인 조직에 배당될 위험이 있다”(ibid., fol. 266).

터 25,000 金弗로 증가되었다. 1927년 예산에 책정된 수익자 명단과 배당금액은 그 이후로 거의 변동 없이 계속된다. 다음은 1927년도 예산 내용이다.

1) 金弗

上海中法기술전문학교	25,000
里昂中法大學	25,000
上海震旦大學	25,000
天津海軍醫官學校	3,000
파리漢學高等研究所	10,000
北京에 강사 초대 비용	3,000
합계	91,000

2) 銀弗

「La Politique de Pékin」	9,000
혼성위원회 경비	4,500
합계	13,500 (약 7,000金弗)

한편 중국측은 그들이 분배를 담당할 금액 중 제일 큰 몫 15만銀弗(약 75,000金弗)을 北京中法大學으로 배당하였으며 里昂中法大學은 18,000銀弗(약 9,000金弗)을 받았다. 그러므로 里昂中法大學이 받은 양쪽 보조금을 합하면 대략 34,000金弗(17만 金프랑)에 달하며 이것은 1927년 프랑시세로 85만 프랑에 해당한다.

대학의 존재와 정상적 기능은 이제 보장되었다. 더욱이 학생수가 감소하여 회계 부담은 더욱 감소되었다.⁶⁸ 바로 이 무렵 꾸랑은 파브로(Favre) 대령이라는 군인에 의해 대치되었다. 꾸랑 자신은 리용 대학에 자리한 里昂中法大學協會의 간사직을 보유하는데 그쳤다.

생띠레네 요새에서 그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이끌어온 대학의 지휘권을 후임자에게 물려주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자기 만족은 있었을지언정 감사의 말이나 찬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중국인들은 그의 퇴직에 대해 오히려 기뻐했던 것 같다. 大學의 주창자 즉 파리派의 중국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그들의

⁶⁸ 1922~1923년도 162명이던 中法大學 학생수는 1923~1924년도에 139명으로 줄어들었고, 1927~1928년도에는 90명에 불과했다. 이 숫자는 몇 년간 지속되다가 1934~1935년도에 75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상을 공유하지 않는 자이며 그들의 원래 계획을 축소시키고 “불란서적 요소의 우위”를 확보한 장본인이었다. 또한 이 사회에 의해 대학을 감독할 직무를 맡게 된 것도 그였으며 중국인들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대학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던 것도 바로 꾸랑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꾸랑의 역할은 항상 악역이었다. 협상이 계속되던 시기 蔡元培는 그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취하였었고, 吳稚暉가 도착하자 꾸랑은 그가 중국에서 학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여 대학의 예산을 불안정하게 만든 데 대해 비난을 하였다. 1923년 上海의 民國日報의 기사거리가 되기 까지 했던 두 사람 사이의 반목관계는 아마 이 사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吳學장의 부재도 한가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대학의 학생들과 꾸랑의 관계도 평탄하지 못하였다. 1924년 국제연맹 대표단을 맞이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학생대표는 “꾸랑씨로 인해 그들이 겪은 괴로움을 대표단에 알리고 그들을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대표단에 속해있던 蔡元培는 우선 吳稚暉에 대한 찬사를 장황하게 늘어 놓은 후 일부 학생에 의해 吳가 그 대상이 되었던 유감스러운 사건들을 상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늘 여러분은 吳學장이 떠난 후 여러분이 겪은 환멸을 저에게 알려 주었으며, 중국인 학장과 꾸랑씨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꾸랑의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학생들은 그가 문과대학에서 행한 중국어와 중국 문화 강의를 헐뜯음으로써 그의 평판에 타격을 주려고 하였다. 중국의 일부 신문들은 이같은 헐뜯음을 게재하였다.

1925년 中法大學의 중국 간사를 맡은 劉厚라는 자연과학 전공의 기숙학생은 꾸랑의 허가 없이 4월 19일 무정부주의적 성격의 정치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후 協會長은 그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다. 劉厚는 李石曾의 명령없이 물러설 수 없다고 응수하였다. 불란서 공사를 통하여 연락을 받은 北京의 李石曾은 당시 불란서에 있던 蔡元培가 결정할 문제라고 통고하였다. 劉厚는 1932년까지 간사장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1925년 蔡회장은 원래 부탁받은 방향과는 정반대로 개입하여 젊은 동포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劉厚는 꾸랑에게 앙심을 품었다. 1926년 그는 꾸랑의 대학운영을 격렬하게 비판한 중국 신문의 기사 넷을 모아 불어로 번역하여 協會의 불란서 회장에게 제시하였다. 그중에는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간 묵은 기사도 포함되었다. 1930년 마찬가지로 劉厚는 『中法年鑑』(Annales franco-chinoises)에 대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꾸

량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1932년 박사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가 감사의 말을 전한 수많은 인물 속에도 꾸량의 이름은 들먹여지지 않았다. 반면 劉厚는 꾸량의 후임자와는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 같다. 그는 1932년 劉厚가 떠날 때 『中法年鑑』에 극진한 감사의 말을 써 주었다. 파브르 대령에 의해 창간된 이 잡지는 中法大學에 관하여 수많은 기사를 게재하면서도 문서보관소의 자료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꾸량의 역할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침묵은 고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중국 간사와 새 불란서 학장 대리 사이에 꾸량의 공적을 무시하자는 공모가 존재하였음이 틀림없다.

학장 대리직을 물러남으로써 꾸량은 그동안 행정과 교육 양면으로 전개해왔던 매우 활동적인 시기에 종결을 짓게 되었다. 1차대전 이후 상업회의소에서 일본어강좌를 개설하였었고 극동문화에 대한 주1회의 강의는 문과대학의 극동사 정식강좌로 대치되었었다. 이같은 강의를 만일 좀더 이른 시기에 맡았다면 그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나 불행히도 그 직후 中法大學 창립에 대한 협상이 전개되었고 이어서 직접 경영을 맡게 되었으므로 연구를 할 시간 여유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강의의 주제를 자신의 관심분야, 따라서 이미 기초가 다져져 있는 분야에 한정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1923년 일본의 봉건제도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여 4년간 계속되었고 이어서 그의 교직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 젊은 날 그의 주요 관심사였던 나라에 대해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를 이용하여 강의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1927년부터 병환으로 중단할 때까지 7년 동안 그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로 일관하였다. 강의 제목을 보아도 상당히 전문적인 강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28~1929년도 1929~1930년도의 “1567년부터 1644년까지의 조선”, 1930~1931년도의 “1392년, 새 왕조의 출범”, 또는 1931~1932년도의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조선의 왕과 정치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강의안을 보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재의 폭을 넓히곤 했으며, 한국에 관련될 때마다 쉽사리 여담으로 빚겨나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꾸량으로서는 이것은 그의 마지막 강의였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최초로 한국의 역사가 대학의 강의대상이 된 것이며 아마 세계 최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합병되

어 소멸될 위기에 놓인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국인과 한국애호가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없다.⁶⁹

꾸랑이 덜 노쇠하고 행정업무에 덜 시달렸다면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저서를 낼 수 있었으려면 불행히도 이미 때는 늦었다. 7년간의 강의에서 남은 것은 간략한 강의안밖에 없다.

1933년 그에게 「중국도서목록」을 끝맺어 주기를 청한 국립도서관 측으로서도 시기를 놓친 셈이다. 꾸랑은 1915년부터 그가 작성해 온 목록을 수정하고 제22章 “叢書”편의 대조 점검을 시도하였으나, 10919번까지 만들어진 그의 원고는 출판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만다.

꾸랑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1932~1933년도 겨울 과로로 인해 강의를 중단하고 남부 지방에서 장기휴가를 가졌다. 그 후 다시 강의를 시작했지만 단기간 계속되었을 뿐이다. 1934년 초 뇌출혈을 일으킨 후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다. 1년 반에 걸친 병고 끝에 1935년 8월 18일 칼뤼르(Calluire)에서 사망하였다. 일흔번째 생일을 두어달 앞둔 때였다.

모리스 꾸랑은 조용히 떠났다. 주변 인물들은 고독하고 내성적인 노교수의 이미지를 간직하였으며 그의 제자들은 항상 열려 있던 그의 문과 환대를 기억하며 원하는 이에게는 언제나 따로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곤 하였다. 中法大學의 젊은 중국 학생들은 때로는 그의 요구를 고리타분하다고 간주하기도 했으나 그의 견해가 깊은 감명을 준 것은 사실이다. 상업회의소, 리용대학, 協會에서 그의 사직으로 생겨난 공백은 사망시에 아직 그 어디에서도 메꿀 수 없는 것이었다.

⁶⁹ 그 같은 시기에 그러한 강의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꾸랑의 한국과 한국문화의 永續에 대한 신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독립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1921년 6월 28일 민주교에게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La corée Libre(『자유조선』)의 英字·佛字 잡지가 우송되어 오고 있으며 회합에 참가하라거나 구독신청을 하라는 초대장을 받곤 합니다. 거기서 샬레씨(M. Challaye)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의 심정을 이해하긴 하지만 저 자신 개입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희망없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고무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불란서는 그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요”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실 La Corée libre를 지지하는 불란서인 “한국의 벗” 명단에서 꾸랑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 李玉 「三一運動에 대한 佛英」의 反響, 『三一運動 五十周年紀念 論集』, 서울, 동아일보, 1969, pp.551~556, p.555.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의 죽음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갔다. 리용의 신문은 그의 생애에 대해 간단하게 몇마디, 그것도 틀린 내용을 실었을 뿐이다. 파리에 집중된 얼마 안되는 불란서 동양학자들 중 그의 추도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를 기억하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본고를 마무리하는 현 단계에서 이 같은 침묵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못된다. 동양학자 중 꾸랑의 제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총장의 반복된 어휘에 따르면 “매우 특수한” 그의 강의의 문제점은 파리에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리용에서조차도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좀 더 폭넓은 교육환경속에 통합되었다면 그의 강의는 보다 영속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中法大學 내의 그의 활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꾸랑이 고되고 명예없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만족했던 것을 보았다. 대학의 존속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완고한 자세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法大學의 주창자들은 그의 업적에 대해 결코 만족을 표시하지 않았다.

학문적 영역에서 꾸랑은 1935년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다. 25년 전 오른손이 마비된 후 저술가로서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주요 저서 출판년도는 19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독자가 그를 망각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꾸랑을 직접 알지 못했던 일본학자 샤를르 아그노애르(Charles Haguenuer, 1896~1976)를 제외한다면⁷⁰ 젊은 시절 그가 펴낸 조선에 관한 저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는 달리 없었다. 모리스 꾸랑의 이름이 환기되고 그의 저서가 인용되는 것은 1945년 한국이 독립을 회복한 후의 일이다. 우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특히 이 분야에 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꾸랑과 같은 우수한 학자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연구하고 소개하는데 전념할 수 있기를 평생 바라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⁷⁰ “Cinquante ans d’orientalisme en France, 1922~1972”, Daniel Bouchez, “Les études coréennes”, *Journal asiatique*, 1973, pp.247~253. *Études coréennes de Charles Haguenuer*, Mémoires du Centre d’études coréennes du Collège de France, Collège de France, Paris, 1980, p.213.

(웁간이 : 全壽蓮)